NEAC 국민경제자문회의 보도참고자료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| http://www.neac.go.kr

2014. 2. 17. (월) 오후 2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공정경제팀 황동언 팀장 (02-731-2430), 김현수 부연구위원 (2431)

국민경제자문회의·대구경북연구원 「한국경제 혁신을 위한 정책방안」 대구 세미나 개최

□ 「**한국경제 혁신을 위한 정책방안**」 세미나가 2.17일(월) 오후 2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개최되어,

○ 한국경제의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극복해 지속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창조적 혁신전략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, 우리경제 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

□ 축사에서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

○ 무엇보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경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며,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'경제혁신 3개년 계획'이 주요 혁신 과제를 선정하고 이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는다면 우리 경제 발전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하였음

○ 또한 창조경제와 내수활성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바,

- 대구는 인근에 다수의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조업 지원이 핵심인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좋은 발전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음

□ 이어진 축사에서 김준한 대구경북연구원장은

○ 대구경북지역은 구미·포항국가산업단지 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지대하게 공헌하였고,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,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, 대구R&D특구 지정, 가속기클러스터 구축, 국가산업단지 지정, 대구·경북혁신도시 등을 통해 미래 국가 및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음

○ 그러나 지역은 경제성장률 둔화, 인구 유출 및 고용사정 악화, 재정자립도 악화 등으로 경제활력이 부족한 현실임

○ 이번 정부의 '경제혁신 3개년 계획'을 대구경북 경제 도약으로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바,

- 지역 차원의 경제혁신 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 실천전략 및 과제를 제안하였음. 이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의 역할 분담 및 협력이 필요함

□ **제1주제 세션**에서는 「한국경제 혁신 전략과 과제」를 주제로 이장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(경북대 교수)이 발표하였음

○ 이장우 위원은 경제혁신의 성패는 계획의 충실 정도와 정부의 확고한 추진의지, 계획의 일관된 집행의 3박자에 달려 있으므로,

- 이해 관계집단의 반대 등 갈등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설계하고,

-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부분과 중장기 과제를 구분하고 각 부처별 추진과제와 범부처 추진과제 등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

○ 추진전략별 주요 과제로는, '비정상의 정상화'를 위해 공기업 개혁

방안 강구,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쟁 기반 확립, 사회적 신뢰 형성 및 사회적 갈등 조정 시스템 마련,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,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제안하였고,

- '창조경제 실현'을 위해서는 창조경제비타민의 활성화, 민간의 자발적 혁신 유도,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, 개방형 경제체제 확대,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, 창조경제 기반 조성 및 성과 확산 등을 제안하였으며,

- '내수 활성화'를 위해서는 유망서비스산업의 육성, 소비활성화, 투자 촉진, 일자리 창출 등을 제안하였음

□ **제2주제 세션**에서는 「대구경제 혁신을 위한 전략」을 주제로 장재호 대구경북연구원 창조산업연구실장이 발표하였음

○ 장재호 실장은 대구경북이 경제혁신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고용, 기업 성장관리 기반, 재정자립도 등에서 아직 취약함을 지적하였음

○ 대구경북 경제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으로 비정상의 정상화, 창조경제 실현, 내수·수출 균형경제를 제시하였음

○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실천전략으로 운영원리 개혁, 지방재정 건전화, 공정한 경쟁을 제시하고,

- 핵심과제로서 ICT R&D 통합관리기능 전담조직 설치, 지방세 비과세·감면 축소, R&D특구 지정요건 완화 등을 제안하였음

○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실천전략으로 주력산업의 고도화, 미래산업의 토대 마련, 창업 활성화를 제시하고,

- 핵심과제로 하이브리드섬유 기술 개발, 원전 안정성 제고 기관 설

립, 지역 R&D 전담기관 설치, 청년창업 지원 분야 확대 등을 제안하였음

○ 내수·수출 균형경제를 위한 실천전략으로 투자 활성화, 일자리 창출, 기업 성장관리 강화를 제시하고,

- 핵심과제로 경제자유구역 지원 확대, 지역간 일자리 미스매치 개선 지원, 정부의 이행보증보험 지원 등을 제안하였음

□ 이어진 **토론 세션**에서는 **김규원** 경북대 부총장을 좌장으로 **권업**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, **김광호** DGB 경제연구소장, **양유길** 대구디지털 산업진흥원 원장, **이공래** DGIST 대학원 교수, **이재훈**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, **정경훈** 매일신문 논설위원이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음

○ 권업 교수는 내수 활성화의 핵심변수인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보면, 지역에 따라 고용증가율 상위 서비스업종은 상이하므로

- 상위 업종을 반드시 육성한다는 것이 아니라, 지역에 따라 유망업종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특정 서비스업종의 성장잠재력이나 지역적합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해야 함을 강조하였음

○ 김광호 소장은 창조금융과 중소기업금융, 지역금융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하면서 창조금융은 벤처금융이자 성장사다리금융이며, 중소기업금융이며 중소기업은 대부분 지역에 소재해 있는 만큼, 결국 가장 핵심은 지역단위의 금융임을 주장하였음

- 기초가 튼튼한 경제, 혁동적인 혁신경제, 내수수출의 균형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하고,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금융의 활성화가 요구됨. 따라서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금융을 통한 정책적 기능의 강화가 필요함

- 또한 지역금융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단계가 창업부터 쇠퇴에 이르는 전단계에서 관계금융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

○ 양유길 원장은 경제혁신 계획을 지역차원에서 산업적으로 수렴하고 '살아남는 도시'가 되기 위해 '3C(Connect, Create, Consume) 기반의 도시'로 재활력화하고 도시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음

- Connect를 위해 창조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앵커가 되는 정책기관(정보통신기술진흥원)을 대구에 유치하고,

- Create를 위해 지역단위 창조경제 전진기지로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하고, 창의적 아이디어 구체화, 멘토링,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창업을 촉진하며,

- Consume을 위해 지역제조업의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계·자동차부품·섬유산업과 SW를 결합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

○ 이공래 교수는 우리 경제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3년짜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과 같으므로,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임팩트가 큰 사업을 발굴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

- 최근 경제성장률이 정체되고 잠재성장률도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년고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바, 벤처기업 창업 및 성장에 의한 청년 고용을 위해 '연구소기업 육성'을 3년 내 임팩트가 큰 사업의 하나로 추천하였음

- 연구소기업 육성의 목표로는 2020년까지 합작투자 창업형 30개, 신규 창업형 20개 등 50개 창업, 10년 후 2개 정도의 히든챔피언

탄생을 제시하였음

○ 이재훈 교수는 추진전략별로 '지역단위에서 해야 할 일'을 제안하였음

- '기초가 튼튼한 경제'를 위해 지역의 핵심적 창조주체들(지역정치 지도자, 오피니언 리더, 지자체, 대학, 지연연구기관 등)이 지역옴부즈만을 구성하여 지역주체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태도조사를 실시하여 피드백을 활성화하고,

- '역동적인 혁신경제'를 위해 지역내 기업간 및 지역외 대기업의 지역내 기업 M&A를 적극 지원하고, 대기업의 CSR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에 대기업지원 인력양성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중소기업 인력양성의 핵심기관으로 활용하며,

- '내수·수출 균형경제'를 위해 독립적인 법적 지역미래전략기구를 신설하여, 4년짜리 지역주민 민원용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지역 비전수립과 지역발전전략 수립 및 주요 이해관계조정기구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음

○ 정경훈 논설위원은 창조는 계획 또는 의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의 개념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, 창조경제의 콘덴츠부터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행가능한 방안부터 찾는 것이 우선과제임을 주장하였음

- 이를 위해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력과 자원배분상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, 지역의 경제환경이나 인프라, 그리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개선,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등의 과제가 있음을 강조하였음